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 연구

황 윤 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 교육은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적인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총체적인 간호지식의 습득이 가능해지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간호관을 형성하게 되며, 미래의 간호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다 구체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간호학생은 낮은 환경에서 시행되는 임상실습 교육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자신과 간호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간호사로서의 미래에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한다(박경숙, 황윤영과 최은희, 2003). 이로 인해 그동안 임상실습 교육으로 인한 간호학생의 부적응 반응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어 왔으나(고성희와 김기미, 1994; 박미영, 2001; 서문숙, 김명희와 전미영, 1996; 신경림, 1996; 이정섭, 1994; Hanna, 1997; Margaret, 1994), 아직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치

매란 뇌의 구조적, 생화학적 변화로 인해 중대한 인지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통칭하는 말로, 자기간호 능력의 상실과 함께 가족 등의 친숙한 사람과 환경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David & James, 1999).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치매 환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매환자 간호에 참여하게 될 간호 인력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교육 중에 직접 치매 환자를 접하며 간호를 제공하는 일은 간호학생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될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는 간호학생은 치매의 주 대상인 노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 치매 환자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치매에 대한 기본지식과 관심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에게 매우 생소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호학생이 받게 될 스트레스도 다른 임상실습 환경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의 개발을 위해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을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험의 의미를 밝히는 기술적 연구로서의 현상학적 측면과 체험과의 개연성을 통해 객관화된 기술 속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 제주한라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측면을 가지고 있는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이다.

II. 본 론

1. 체험의 본질에 집중

체험은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이다.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현상을 지향하고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며 가정과 선이해를 설명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을 지도하면서 간호학생이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음으로써 현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지향을 통해 형성된 현상학적 질문은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은 무엇인가?'이다.

연구 내내 현상학적 질문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선이해와 가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나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간호학생일 때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판단을 중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선이해를 배제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단계와 분석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문헌고찰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가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이해와 가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간호학생은 치매환자의 상황에 당황할 것이다.

둘째, 간호학생은 치매환자의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간호학생은 삶(인생)에 대해 숙고하게 될 것이다.

넷째, 간호학생은 치매환자에 대한 시각이 변화될 것이다.

2. 실존적 탐구

1) 어원추적

어원에 주목하다 보면 단어들이 나오게 된 원천인 체험과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던 본래적인 생활형식과 만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치매환자들이 노인이었으므로 노인, 치매, 임상, 실습의 어원을 살펴보았다.

노인(老人) : 늙은이. 늙으신네(이희승, 2001).

치매(癡呆) : 언어 동작이 느리고 정신 작용이 완전하지 못함. 어리석음.

· 획득(獲得)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적인 능력이 지속적·본질적으로 상실된 상태를 이룸(이희승, 2001).

· 후천적인 뇌기질 장애에 의해 한번 획득된 지능이 침범된 결과 생긴 영속적(불가역적)인 지능의 결손(대한간호학회, 1995).

임상(臨床) : 병상(病床)에 입함(이희승, 2001).

실습(實習) : 실지로 해보고 익힘. 주로 실과(實科)에 관한 일을 현장이나 실습실 등에서 행하는 학습(이희승, 2001).

노인은 늙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을 이르는 말로, 노인과 관련된 관용구에는 노인에 대한 여러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

「나라 상감님도 늙은이는 대접한다」는 나라의 임금님도 노인은 공경하듯이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는 뜻이며, 「노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경험이 많은 노인의 말을 따르면 이익을 보게 된다는 뜻으로, 노인은 인생에 대한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며 삶에 대한 지혜를 터득하고 있으므로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나무가 고목되면 오던 새도 아니온다」는 사람이 늙게 되면 남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쉽다는 뜻이며, 「너무 오래 살면 욕되는 일이 많다」는 오래 살게 되면 보지 않아도 될 나쁜 일까지 다 보게 된다는 뜻으로, 노인을 힘없고 무력한 존재로 여겨 소외시하면서 노인이 너무 오래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가을 날씨 좋은 것과 늙은이 근력 좋은 것은 못 믿는다」와 「늙은이 숨쉬는 것 장담 못한다」는 노인의 건강은 변하기 쉽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노인의 건강은 함부로 확신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星湖全書 7권 百諺解에서도 「老人之臥 恰似麥臥」 즉, '늙은이 보리 쓰러지듯 한다' 라고 하여 노인은 기력이 떨어져 병에 걸리기 쉬우며, 한 번 건강을 잃게 되면 쉽게 악화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노인은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지혜를 터득하고 있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현자(賢者)로 인식되고 있으나, 반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힘없고 무력한 존재로 여겨져 소외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인은 건강상태를 확신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한편 치매는 불가역적인 정신능력의 상실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의 영위를 어렵게 하며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문학과 예술작품에서의 경험적 묘사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과 관련된 문학과 예술작품은 찾을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시와 시조, 치매환자 요양시설 복지사와 치매환자 가족의 수기 등을 참고로 하였다.

〈그 곳엔 아직 소녀가 살고 있지〉에서 치매환자인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여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 늙고 바보처럼 변해버렸지만 여전히 소녀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한 여인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있다.

복지원에서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생활복지사의 수기 〈어르신〉에는 복지원 입소로 인해 볼 수 없게 된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 곳엔 아직 소녀가 살고 있지

...

간호사,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요?

당신은 나를 볼 때마다 까다로운 늙은이, 현명하지도 못하고

시선은 먼 곳에다 박은 채 번덕스런 성격을 가진 한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음식이나 질질 흘리고 “다시 한번 해봐요”하고 당신이 소리쳐도 아무 반응이 없는

당신이 요구하는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끝없이 스타킹과 신발을

잊어버리는 그런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인가요? 당신 눈에 보이는 게 그것인가요?

그렇다면 간호사, 눈을 뜨고 날 바라봐요.

내가 이곳에 꼼짝 않고 있을 때 내 안에 누가 있는가를 당신에게 말해 줄 테니,

당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당신의 의지에 따라 음식물을 받아 먹을 때...

내 안에는 아직 열 살 먹은 어린아이가 숨쉬고 있단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내 안에는 또 머지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꿈꾸는

두발에 날개를 매단 열일곱살의 소녀가 있단오.

그리고 심장이 약동하는 스물한 살의 신부도 그 곳에 있지요.

...

난 이제 한 사람의 늙은이, 자연은 그토록 잔인하지요.

나를 늙게 하고 바보처럼 만들어 버린 건 자연의 짓궂은 농담이지요.

육신은 서서히 무너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갔단오.

한때 심장을 갖고 있던 자리에 이제 돌덩이를 갖고 있지요.

하지만 이 늙은 몸통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 소녀가 살고 있답니다.

...

그러니 간호사, 당신의 눈을 열고 나를 봐요.

까다로운 늙은 여자라고 여길 게 아니라 좀더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봐요!

(작자미상, <http://www.shsw.or.kr/zero/view.php=23>)

하는 치매환자의 간절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장어르신은 무척 집을 그리워하고 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장어르신은 조그마한 세면백에 속옷과 양말, 류지 등을 챙겨 놓고 언제든 집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어르신은 준비해 놓은 세면백과 여행을 가실 옷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꾸만 가시겠다고 하여 밖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차안에서 어르신은 저에게 “운전 참 잘하네”하며, 저를 기분 좋게 합니다. 만원짜리 지폐를 내보이며 집에 가면 두배의 차비를 준다고 합니다..... 40분여 지났을까? 다시 복지원 쪽으로 되돌아오니 다급해지셨습니다. 안 가신다고..... 복지원에 다가오자 황급히 내려 본넷트를 열고 차를 점검하였습니다. “아, 차가 고장났네” 약간의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차를 수리하고 내일 일찍 가시는 게 좋겠네요” 어르신은 믿기지 않는 듯 했지만 일단 내리셨습니다..... 내일 가자고 안심감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어르신은 어제 있었던 구체적인 일은 기억하지 못했으나 저를 더욱 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환하게 인사하시며 내일 집에 가신다고 합니다.

(<http://www.alz.or.kr>)

김세환(2002)은 시조집 <어머니의 치매> 중에서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때때로 자신과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부르곤 했던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어머니의 치매 · 31

“어머님, 언니, 아줌마, ...”

아내의 호칭이다.

“아주버님, 선생님, 오빠, ...”

나의 호칭이다.

이따금

아버지로 알고

호된 역정도 듣는다.

<할머니 사랑해> 라는 수기에서도 치매환자인 할머니가 자신(손녀딸)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남처럼 쌀쌀하게 대하는 상황에 대한 충격과 슬픔이 나타나 있다.

병원에 갔다 왔는데 치매라고,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불리우는... 할머니가 아무데나 돌아다니시고 어린애처럼 굴어도 좋았어요. 그런데 절 못 알아보시고 너무 쌀쌀하게 하시는 것만큼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시고 웃기도 하시고 할 때는 좋았는데 또 쌀쌀하게 하시고...

(<http://www.alzza.or.kr/ezboard/ezboard.asp=5>)

<할머니> 라는 수기에서 치매환자인 할머니를 면회한 손녀딸은 자상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며칠 전에 뵙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울증까지 와서 식사를 거부하시는 모습에 울고... 엄마, 아빠가 직장에 나가셔서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랑 오빠랑 많이 보살펴 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참 많이 아프네요.

(<http://www.alzza.or.kr/ezboard/ezboard.asp?mode=view&sid=1638&sid=memoir&page=8>)

3) 연구자 자신의 경험 기술

본 연구자는 간호과 2학년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임상실습 병원으로 선정된 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연구자에게는 노인전문병원 자체도 조금 생소했지만, 특히 그 병원에 있는 노인 치매병동(노인 개방병동)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지금까지는 TV 드라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치매환자를 접해 오면서, 상태가 위중하고 쉽게 치유될 수 없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환으로 인식해오던 터였다.

임상실습 첫 날, 간호학생들과 함께 병원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서 본격적인 병원 투어가 시작되었다. 병원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였으며, 다른 병원과의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두 번째 실습지도차 방문하여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치매병동으로 들어섰을 때, 마침 치매병동의 큰 요법실에서 노래요법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니 치매환자 여러 명이 함께 어울려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거나, 흥에 겨워 서로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다. 어느 경로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요법실 한쪽 구석에는 노래요법에 개의치 않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고, 진행되고 있는 요법과 상관없이 요법실 안을 왔다갔다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었다. 노래요법이 끝난 후 간호학생들과 실

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계속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찾는 할머니와 그 할머니만을 졸졸 따라다니는 다른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치매환자에 대해 막연히 그려왔던 모습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런 것이 바로 치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간호학생들의 치매환자 간호에 대한 실습소감을 들으면서, 과연 간호학생은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4) 현상학적 문헌참고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과 관련된 현상학적 문헌은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치매노인 봉사체험 연구와 가족과 간호사 등 치매환자 돌봄제공자의 돌봄경험에 대한 문헌을 참고로 하였다.

간호학생의 치매노인 봉사체험에 대해 연구한 김순이, 김신미와 양승희(2001)는 간호학생의 치매노인 봉사체험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인생의 덧없음을 인식함, 인간의 늙어감과 유한성 인식, 늙어가는 부모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죽음의 의미를 내재화, 드러난 치매노인들의 모습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형성된 눈물, 보람과 내적인 자아발전을 인식함 등의 주제가 도출되었다고 하였다.

치매노인을 간호하는 가족들의 경험에 대해 연구한 김숙영과 이순희(1998)는 치매의 원인, 치매에 대한 초기반응, 치매노인에 대한 대처방법, 장기간의 치매노인 간호로 인한 결과 등 4개의 범주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Ann 등(2001)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8명의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치매의 증상들, 치매환자의 상황, 치매 발병 이전의 관계, 돌봄제공자의 부담감, 돌봄제공자의 감정, 돌봄제공자의 대처전략 등 6개의 범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경험을 연구한 이경순(1996)은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 피로, 적응, 영적인 삶, 성숙, 정보추구 등의 주제를 보고하였으며, 돌봄제공자와 중증 치매환자와의 돌봄관계에 대해 연구한 Ewa(1999)는 접촉, 상호간의 수용, 돌봄에 대한 돌봄제공자의 가치기준 등이 돌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노인성 치매환자의 돌봄경험에 대해 문화기술지를 통해 연구한 김귀분과 이경희(1998)는 심리적 갈등, 신체·사회·심리적 억압, 고립, 수용, 사랑, 소망의 경험을 통해 초

기에는 신체·심리적 혼돈과 고통 및 갈등 등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만, 점차 상황을 인정하면서 수용의 단계가 시작되며 시간이 경과되면서 사랑과 소망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근거이론을 적용해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관계 변화에 대해 연구한 Judith, Penny와 Phyllis(1994)는 치매환자의 가족이나 돌봄제공자는 치매환자와 상호작용의 시작기, 유지기, 분리기를 거치면서 '낮선 사람 되어가기'의 과정을 밟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돌봄제공자와 치매환자 사이의 수용정도, 질환의 결과로 인한 잠재적인 상실정도, 지지의 정도 등 3개의 중재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에 대해 연구한 김미영(2001)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는 바라봄, 다가감, 직면함, 마음 오감, 어우러짐의 단계를 거쳐 '감싸안음'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감싸안음'은 다정다감함, 섬김형, 갈등형, 무관심형의 4가지로 파악되었다고 하였다. 간호제공자들의 치매노인 공격행동 경험에 대해 연구한 오진주(2000)는 간호제공자들은 치매노인의 공격행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속상함, 스트레스, 화가 남, 당황, 불안, 무서움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방관 및 무관심, 참음, 상황 떠남, 달랠, 야단 칠, 억제 및 격리, 다양한 관리기술 사용, 적응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5) 연구참여자의 개별체험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제주도 소재 C 의료원 치매병동에서 4주 88시간 동안 임상실습을 시행한 C 대학 간호과 2학년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2003년 3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면담 시작 전에 면담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치매환자 간호 임상 실습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실습 전반에 대한 소감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후에는 녹음한 면담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하고 인쇄하여 분석을 시작하였으며, 재확인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3.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현상의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체험의 의미구조를 반성적으로 수용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질적인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면담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을 나타내는 주제진술들을 분리시킨 후, 주제진술 중 유사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난 진술들끼리 묶어서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언어적 변형을 거쳤다. 언어적 변형과정을 거쳐 도출된 본질적인 주제는 현상학적 연구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과 박사과정생 1인에게 읽게 한 후 자문을 구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타난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의 본질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생소한 실습환경에 당황함
- 환자의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워함
- 환자의 행동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
- 친할머니처럼 다정다감한 정을 느낌
-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확인함
- 호전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
- 치매에 대한 편견이 누그러짐
-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함
- 치매간호를 포괄적이고 폭넓은 분야로 고려함

1) 생소한 실습환경에 당황함

간호학생은 새로운 실습부서에 대한 기대를 안고 치매병동으로 들어선 순간, 아무 곳에서나 불일을 보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무표정하게 배회하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낯선 상황에 당황하게 된다.

처음에는 당황했죠. (거기서는) 언제나 늘상 있는 일인데 제가 보기엔 생소한 장면들이어서,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아무메나 불일 보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

경직되가지구요. 그냥 할머니들이 막 왔다갔다 하시고. 너무 탁 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부터 뭘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그랬어요.

처음에 놀란 건 막 소리지르시는 할머니들 때문예요. 약간 '아~ 정상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드는 생각이 좀 뭔가가 다르다는 생각이요...

2) 환자의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워함

평소 치매환자를 접해 보지 못했던 간호학생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을 보이던 환자에게서 한순간 치매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크게 당황하며, 치매환자의 상태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제가 실습복을 입고 있으면은 단추 같은 것을 막 만지작 만지작거리면서 "여기 뭐 묻었다"고 하시면서 막 닦는 시늉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개 깜짝 놀래고, 진짜 아까는 정상적으로 보였었는데... 가끔가다 저기 좀 보라고 하셔서 보면은 아무 것도 없는데 "저러면 안된다"고 이러시고, 적응이 안되고 헛갈렸죠.

제가 막 "할머니, 콕이팅!" 이러면은 할머니도 같이 놓고 정말 괜찮으신 것 같으셨는데, 한 번은 손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막 이러면서 손을 내 손에 꼭 쥐어 주시고 그러면 전 받은 척 해야 되잖아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서 가지고 맨날 이렇게 걸어다니시는데 그 할머니는 처음에 말을 걸어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할머니는 원래 상태가 이러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단 뒤에 앉아 가지고 말을 하세요. 깜짝 놀라세요...

진짜로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아~ 어느 게 진짜일까?' 하는 그런 생각. '지금은 도대체 어느 상태이신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3) 환자의 행동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

간호학생은 치매환자의 의견이나 행동을 무시했을 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폐쇄적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환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할머니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할머니들의 생각이 어디로 뭘지 모르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안되는 것 같

면은 안타깝고...

살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년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더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금방 말짱해지실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게... 진짜로 대개 안쓰러운 게 그냥 이렇게 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갈까 봐 그게 제일 그렇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디 특인 데 없냐'고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데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할머니, 다 막혔어요. 어디 나가실 길이 없어요" 하니까 할머니는 '집에 가야 한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고 그랬죠.

7) 치매에 대한 편견이 누그러짐

간호학생은 치매환자를 가까이에서 직접 돌보며 치매에 대해 실제적으로 알게 되면서, 환자들에게 친숙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막연히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들을 버리게 된다.

우선 인식이 바뀌었어요. 제가 치매 환자를 알기 전과 그 후에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실습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막 가졌던 생각, 그런 거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치매에 대한 선입견 그런 거요.

실습을 가서 보니까 할머니들이 막 잠깐 잠깐 무섭고 욕설하시는 모습도 있으신데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치매하면은 "어유" 하면서 TV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벽에 뚫히고 그러는 거만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다 그렇게 심하신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도 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거 같았던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질병 그런데 좀 극복하기 힘든 그런 걸로...

8)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간호학생은 많은 치매환자가 치매에 걸릴 만한 특별

한 소인이 없었던 사람들임을 알게 되면서,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도 치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

나도 언젠가 나이 들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나중에 내 생의 말기에 저런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대개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걱정 되요. 할머니들도 치매에 걸릴 법한 할머니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기가 치매에 걸릴지... 그러니까 걱정되죠. 우리 엄마, 아빠도 저렇게 되면은 어떻하나 걱정도 되고.

'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되시면 안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9)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함

간호학생은 여러 상태의 치매환자들이 모두 똑같은 요법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중증인 분들에게는 대상자가 안정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다가서구요, 경한 환자분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정말 그 할머니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에게 폭행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단체요법에 참여하기보다는 혼자 할 수 있는 요법이라든가,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간병사님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요법들이 있잖아요. 일대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요법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치매 할머니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관심을 가져 주는 거고 자꾸 얘기해주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단체요법 하는 것 보다는 개별적인 접근이 할머니 한분 한분한테...

노래방할 때 "할아버지, 이 노래 할아버지 부르세요"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 노래 잘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가지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는 게 계속 반복되면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10) 치매간호를 포괄적이고 폭넓은 분야로 고려함

간호학생은 다른 환자의 간호와 달리 치매환자 간호를 환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간호로 생각하며, 치매간호를 보다 폭넓은 분야로 인식하게 된다.

다른 일반환자들보다는 어쩌면 더 많은 걸 생각해내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환자들은 아프다고 하면 노티해주고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치매환자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상대해주고 얘기를 들어 주고, 환경에 맞게 이것저것 놀이 같은 걸 제공해주고 하면서 발전적인 걸 더 생각해내고, 그런 걸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할머니들마다 행동양상이나 특징들도 다 틀리시고 이러니까, 계속 케이스를 잡아서 연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다’ 이런 게 대개 폭넓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때 그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환자들보다 더 관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하니까. 좀 그런 면으로 여러 분야가 같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4.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는 좀 더 생생한 체험들을 읽어낼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쳐쓰는 글쓰기 과정이 포함된다.

간호학생은 그동안 치매에 대해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기대와 걱정 속에 치매병동 실습을 시작하게 된다. 실습 첫 날 아침 치매병동에 들어선 간호학생은 아무 곳에서나 불일을 보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무표정한 얼굴로 오가는 치매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낯설고 생소한 분위기에 당황하게 된다. 잠시 후 치매병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

서 치매환자들을 직접 접하게 된 간호학생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을 보이던 환자에게서 한순간 치매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이중적인 치매환자들의 상태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실습이 진행되면서 치매환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간호학생은 이해하기 힘든 환자들의 이야기나 행동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제지하기보다는, 존중하면서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차츰 치매환자들과 가까워진 간호학생은 자신을 손녀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려해주는 환자들에게서 마치 친할머니같은 따스한 정을 느끼게 되고, 비록 몸은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늘 가족을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는 중에 때때로 자신이 처한 상황도 모른 채 현실과 상상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어린애 같지만 한 환자들의 모습에 직면하게 될 때면, 간호학생은 남은 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치매환자들의 처지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가까이에서 치매환자들을 돌보고 지켜보며 치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들을 버리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치매가 모든 사람들에게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나중에 치매가 발병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과정 중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집단요법 치료를 보면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치매환자 간호를 일반환자 간호와 달리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폭넓고 포괄적인 분야로 인식하게 된다.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간호학생의 간호요구에 대한 민감성의 향상과 효율적인 간호중재 개발이 이루어져 간호지식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사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체험의 본질에 집중, 실존적 탐구, 해석학적 현

상학적 반성,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의 4단계를 거치며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제주도 소재 C 의료원 치매병동에서 2주 88시간 동안 임상실습을 수행한 C 대학 간호과 2학년생 8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주제를 분석하고 언어적 변형을 거쳐 나타난 간호학생의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체험의 본질적 주제는 「생소한 실습 환경에 당황함」, 「환자의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워함」, 「환자의 행동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 「친할머니처럼 다정다감한 정을 느낌」,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확인함」, 「호전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 「치매에 대한 편견이 누그러짐」,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함」, 「치매간호를 포괄적이고 폭넓은 분야로 고려함」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은 처음 접하게 된 치매병동의 낯설고 생소한 환경에 당황하게 되고, 정상적인 모습과 전형적인 환자의 모습을 함께 보이는 치매환자의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치매환자와 시간을 보내게 된 간호학생은 환자의 의견이나 행동을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도움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때때로 반갑게 맞아주는 치매환자에게서 마치 친할머니같은 다정다감한 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치매환자가 몸은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늘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현실과 상상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치매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간호학생은 지금까지 치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게 되고, 치매환자 대부분이 특정 유발요인 없이 치매를 앓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도 나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갖게 된다. 그러는 한편으로 치매환자의 상태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집단 요법치료를 보며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치매환자 간호를 일반적인 간호와 달리 환자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폭넓고 포괄적인 분야로 인식하게 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여러 단계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2) 간호학생이 치매환자 간호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성희, 김기미 (1994).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33(2), 59-71.
- 김귀분, 이경희 (1998). 노인성 치매 환자의 돌봄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대한간호학회지*, 28(4), 1047-59.
- 김미영 (2001).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과 정. *질적연구*, 2(2), 65-76.
- 김숙영, 이순희 (1998). 치매노인을 간호하는 가족들의 경험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0(3), 492-505.
- 김순이, 김신미, 양승희 (2001). 간호학생의 치매노인 봉사체험 연구. *질적연구*, 2(1), 65-76.
- 김세환 (2002). *어머니의 치매* 북랜드.
- 대한간호학회 (1995).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 박경숙, 황윤영, 최은희 (2003).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5(3), 373-82.
- 박미영 (2001).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분노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1), 7-21.
- 서문숙, 김명희, 전미영 (1996).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 *기본간호학회지*, 3(1), 128-39.
- 속담사전 편집부 (1993). *속담사전* 대경출판사.
- 신경림 (1996). 간호학생의 첫학기 임상실습 체험연구. *성인간호학회지*, 8(1), 156-68.
- 이경순 (1996).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경험. *정신간호학회지*, 5(2), 50-8.
- 이정섭 (1994). 학생들이 정신간호학 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3(1), 15-28.
- 이희승 (200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임종욱 (2001). *한국 한자어 속담사전* 이희문화사.
- 오진주 (2000). 간호제공자들의 치매노인 공격행동 경험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2), 293-306.
- Ann, M. S., Lena, A., Solve, E., Sven, M. S., Margareta, G. (2001). Burden of responsibility experienced by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dementia sufferers.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15, 25-33.

- David, K. E., James, R. C. (1999). Dementia in the Elderly: An Overview. *Generations*, 23(3), 9-16.
- Ewa, M. R. (1999). Caring relationships with patients suffering from dementia - an interview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9(4), 800-7.
- Hanna, A. (1997). Nursing Students' Stress During the Initial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6(7), 323-7.
- Judith, W., Penny, K. E., Phyllis, N. S.(1994). Becoming strangers: the changing family caregiving relationship in Alzheimer's diseas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 437-43.
- Margaret, E. W. (1994). Nursing Students Perspective of Learning in a Clinical Sett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2), 81-6.
- Van Manen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Express.
- <http://www.shsw.or.kr/zero/view.php=23>
- <http://www.alz.or.kr>
- <http://www.alzza.or.kr/ezboard/ezboard.asp=5>
- <http://www.alzza.or.kr/ezboard/ezboard.asp?mode=view&idx=1638&id=memoir&page=8>

- Abstract -

The Study of the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of Dementia Patients

Hwang, Yun Young*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of dementia patients, which will provide the basic research material to enhance the effect of their clinical practice. **Method:** Van Manens hermeneutic-phenomenological method has been used to analyze the data. Participants consisted of 8 second-year nursing students who did the clinical practice at a dementia unit in C hospital. Data was collected from in-depth face to face interviews. **Result:** 「being confused by the unfamiliar environment of nursing practice」, 「being disordered about the patients' duality behaviour」, 「perceiving necessity to accept patients' behaviors」, 「feeling personal connections likely to grandmother」, 「realizing the patients affection of their family」, 「being frustrated by the patients' hopelessness」, 「lessening biased view on dementia」, 「feeling the anxiety about the unsecured future」, 「realizing the necessity of the gradual and individual care」, 「understanding the nursing of dementia as comprehensive nursing」 **Conclusion:** We are able to obtain an in-depth understanding about the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of dementia patients. Based upon thi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better nursing interven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 of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Nursing student, Dementia patient, Clinical practice; Lived experience

* Fulltime lecturer, Dept. of Nursing, Cheju Halla College